

20세기 최고의 종교화가 『루오』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느리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루오는 사회적 욕망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실천해 독보적인 예술 경지를 창조했는데 그는 소용돌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던 20세기 다양한 예술에 쫓아가기보다는 예술과 종교를 융합시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루오가 신의 존재를 찬미한 대표적인 작품이 <성안>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루오는 특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무수히 많이 그렸다.

그리스도가 끌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도중 한 여성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 준다. 땀을 닦은 그 수건에 그리스도의 상이 찍혔고 사람들은 그 수건을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안(聖顔)이라고 한다.

루오는 여러 장의 <성안>을 그렸는데 특히 이 작품은 파리 근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교적이면서 미술사적으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루오가 종교적인 주제에 집중하게 된 것은 1911년 가톨릭 철학자 J.마르탱과의 만남에 의해서다. j.마르탱과의 만남은 루오가 종교화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루오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그림을 그렸다.

루오는 신을 멀리한 인간들의 내면의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했으며 그가 그린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가난과 슬픔에 쌓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는 인류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다.

루오는 가난하지만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집안의 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미적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 그는 14살 때 스탠드 글라스 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후에 루오에게 스탠드 글라스 그림은 그의 예술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루오는 중세 시대의 성당을 장식했던 스탠드 글라스의 영향을 받아 밝고 선명한 색채와 굵은 윤곽선을 사용했다.

루오는 전업화가의 길을 가면서 출세보다는 작가로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정립하기 위해 더 애를 썼다. 그는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 묘사에 역점을 두었다. 사랑과 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보여 지는 것 외에 심미적인 것에 역

점을 두었고 그러한 테마는 끝까지 이어진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추구 해온 루오는 이 시기에 창부 시리즈에 매달리게 된다. 루오의 창부 시리즈를 대표하는 작품이 <두 창녀>다. 이 작품은 손님에게 선택받는 순간의 긴장감을 표현했다.

사창가에서 두 명의 매춘부가 스타킹 하나만 걸치고서 있고 그녀들 뒤에는 여러 명의 매춘부들이 의자에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검은 머리의 뚱뚱한 매춘부는 붉은색 꽃을 머리를 장식하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고 금발의 머리를 틀어 올린 금발의 매춘부는



<성안>-1933년, 캔버스에 유채, 91*65, 파리 근대 미술관 소장

노란색 스타킹을 신고 있다. 두 명의 매춘부들의 몸매는 대조적이지만 축 늘어진 가슴과 넉넉한 뺨살은 싸구려 사창가에 있는 매춘부를 암시한다.

이 작품은 창부 시리즈 중에 하나로 루오는 1902년부터 정열적으로 나체의 창부에 그렸는데 그는 매춘부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담아냈다. 여자에 대한 공포를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매춘부들의 얼굴로 표현했다.

조르주 루오<1871~1958>는 다른 어떤 미술 사조나 그 시대의 미술 흐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예술 세계는 회화적 기교를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그의 예술적 영감을 통해 그 내면의 진실을 고백한 것이다. 하지만 성서적 주제에 많은 작품을 남긴 루오의 회화는 주제만큼이나 구도 또한 다양하지 않고 단순화, 일원화되어 있다.



<두 창녀>-1906년, 종이 위에 파스텔, 69*54, 캐나다 오타와 내셔널 갤러리 소장